

“육신 불편해도 마음만은...”

‘장애인의 날’에 만난 남강스님

“부처님 인연으로 웃고 사는 만큼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른팔과 왼쪽다리가 불편한 남강스님(59세)은 사제 성종(지체장애) 우종(시각장애) 무종(지체장애·입적)스님 등과 83년 정읍시에 법인사를 창건했다. 스님들은 “장애인이지만 만큼 더욱 노력하고 모든 사찰수입을 사회에 환원하자”고 결의, 불편한 몸과 맨주먹으로 직접 벽돌을 쌓고

나무를 다듬어 절을 짓고 14년동안 자비행을 실천해왔다.

“한달에 한가지 이상 선행을 하자”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스님들이 매달 반드시 찾는 곳이 있다. 고아원 양로원 군법당 교도소. 또 장기수 6명과 자매결연하여 영탁금과 용돈을 매달 지급하고 있고, 2명의 대학생과 고교생을 기르고 있다. 남강스님은 직접 자전거를 타고 매달 정읍시내 각 동사무소와 파출소 40개소

장학회·유치원 설립 ‘새싹포교’ 고아원·양로원·교도소 등 매달 방문

에 월간잡지를 넣어주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고창 자룡중대에 군법당을 건립하기도 했다.

85년 법인장학회를 설립한 남강스님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정읍관내 9개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 지금까지 3백15명이 6천8백20만원을 혜택을 받았다.

스님은 또 90년 건립 1백20평 2층규모의 법인유치원을 설립했다. 유치원은 매년 1백여명이 수료하고 있고 매주 어린이법회와 봄·가을 불교학교도 성황이다.

“법은 종교가 아니라 주는 종교가 돼야죠. 부처님 일은 사심없이 행하다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남강스님은 정읍 내장사에서 유독 장애인상좌를 뵈던 세정스님을 은사로 사제들과 함께 득도했다. <정읍=김영우 기자>



◇정읍 법인사 남강스님은 오른팔과 왼쪽 다리가 불편함에도 끝까지 없는 자비행을 펼쳐오고 있다. 사진은 법인사 어린이 야외법회 장면.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개원

습의-어산 3년 과정... 5월중 개강

의식집전의 내적 통일과 불교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조계종 특수교육기관 ‘불교어산작법학교’가 문을 열었다.

교육원과 중앙승가대는 9일 중앙승가대에서 어산작법학교 개교 및 현판식을 갖고 이달말까지 신입생을 모집, 5월중 개강한다.

●어산작법학교(교장 인목스님·중앙승가대 강사)는 습의과(기초반) 어산과(전문반)를 두고 △조계종 불교의식 어산작법을 집전할 수 있는 승려 양성 △어산작법을 교육할 수 있는 교역자 양성 △전통불교의식 어산작법 전반에 대한 연구 및 계속 발전방향 모색 등의 활동을 펼친다.

정원은 어산과의 경우 15명, 습의과의 경우 50명 이내로 하며, 수업연한은 어산과가 2년(4학기), 습의과는 1년(2학기)이다. 어산과에는 신중작법, 시련, 대령, 관육, 상주권공 등이, 습의과에는 일음의식(도량식, 종승, 축

원, 예경) 상용의식(신중작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제반의식(대령, 관육, 시다림, 방생) 등의 교육과정이 편성돼 있으며, 의식과 불교사상, 불교와 문화예술, 비종교의식, 평생의례 등의 특강이 마련된다.

문화사랑본부 발족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부산종교인평화회의(공동대표 정각스님)는 16일 오전 11시 시립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우리문화사랑운동본부 발족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

본부발족을 계기로 인간성회복과 도덕성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불교, 가톨릭, 개신교, 유교 등 종교계와 문화민속단체, 학술계에서 함께 참여하여 펼치게 된다.

우리문화사랑운동은 크게 전통문화에 걸 바로알기, 향토사랑, 청소년 정서함양 등으로 나누어 △향토문화대학과 청소년전통문화교실 개설 △전통문화 자료제작 △부산지역 문화예술인과 우리민요연구회 등이 참여하는 수영아류 동아리류 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IPU총회서 성가곡 합창 ‘물의’

정각회 강력 대응키로

지난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개막식 행사에서 특정종교의 성가곡이 연주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서 선명회합창단은 ‘사랑의 평화’란 기독교 성가곡을 축가로 불렀다. 국회의전과 의외에 의해 이번 행사를 주



◇조계종은 평담호에서 9일 5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방생대법회’를 개최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끓주리는 동포살리기 나서자”

조계종 ‘한민족공동체 방생’ 5천여신도 동참

조계종(총무원장 일주)은 9일 경기도 남양주시 평담호에서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사, 도선사 등 서울·경기 지역 사찰신도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방생대법회는 폐불이운식, 영산재 등이 차례롭게 진행됐다.

이날 일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번 방생대법회는 불교기를 살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사 위기에 처한 북한동포를 살리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끓주린

북한동포, 국내 절대빈곤층,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평담호에서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이날 법회장에는 북한동포돕기 모금함을 설치해 성금을 모았다.

“이렇게 알았으면 안았지요. 뜻있는 방생법회라고 해서 왔는데 실망했습니다.” 방생대법회에 참여한 불자들은 발길을 돌리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조계사 총무원이 주관하는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방생대법회’의 준비과정은 거창해 불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막상 행사장에 참여한 불자들은 이내 실망하고 말았다. 사찰들도 ‘눈도장만 찍고(?)가자’는 식으로 눈

인천청교련 ‘청소년쉼터’ 개원

비행예방·취업알선... 24시간 전화상담도

대한불교청교련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가 9일 YMCA, 청소년연맹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청소년쉼터를 개원했다. 인천시 중구 송학동 2가 1번지에 단독주택 형식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된다.

청교련 청소년쉼터는 가솔청소년들에 대한 △진로교육 및 취업알선 △정서교육 △청소년비행예방교육 △생활활동 등을 지도하는 청소년전선도상담시설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청교련 인천지부는 5명의 실무위원과 15명의 운영위원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인천시 경찰서 및 학교 등에서 위임받은 가솔청소년 선도사업에 들어갔다.

청소년쉼터는 또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를 통해 가솔청소년들을 교화할뿐 아니라 해당지역 사찰과 연계해 불교인성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선일스님은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솔청소년들의 보호역할에서부터 재할, 취업까지 도와주는 청소년선도전문상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명대사 호국선양회

15일 표충사서 창립

(가칭)사명대사호국선양회(준비위원장 신하스님)가 15일 밀양 표충사 의종당(설법전)에서 창립 법회를 가졌다. 제507회 사명대사 춘계향사일에 맞춰 열린 이날 법회는 향사(享祀), 서산 사명 기허 3대선사 추모법회, 창립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표충사 주지 신하스님은 이날 창립취지문을 통해 “은 국민이 사명대사의 불가사의한 법력을 받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조국을 통일시켜 부처님의 지비와 지혜가 온 누리에 가득치게 하자”고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원 ‘살쌍살기’ ‘팔담호 살리기 수중대청소’ 마저 취소돼 형식적인 행사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같은 주최측의 무성으로 인해 신도들은 방생법회인지 야유회인지 갈피를 못잡는다는 표정이었다. 소문만은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을 연상케 했다. 조계종이 추구하는 것처럼 진정한 한민족 한생을 위한 방생법회라면 먼저 불자들이 방생법회에 동참을 제대로 느끼게 하는 것이 주최측의 의무라는 지적이다.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방생대법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법회인지 자못 궁금하다.



김중근 <취재 1부 기자>

실속없는 방생법회

컸다는 점이다. 불제 실속없는 행사진행이다. 방생법회의 참뜻을 살리면서 신도들에게 불교기 방식을 자제토록 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당초 계획했던 ‘1만불자 통일발

도피안사 일대 관광코스 개발

도피안사 화엄사 등 주요 전통사찰이 강원도에 의해 관광코스로 개발된다.

강원도는 비무장지대를 일주하는 ‘통일안보 관광코스’를 개발, 본격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나섰다. 이번에 개발되는 관광코스는 철원 양구 화천 인제 고성 등 강원도내 휴전선 인접 5개군의 비무장지대 2백25km로 △도피안사~통일전망대 △철원 철의삼각지대 등 4개권역으로 단일 또는 1박2일 코스타다.

현불뉴스

선암사 관음전 전소

선암사(주지 해민)의 관음전이 4일 방화로 추정되는 불로 전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화재는 4일 오후 7시경 발견되어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거센 불길로 근접이 어려워 다음날 새벽 2시경 전소되었다. 선암사측은 화재발생 당시 비가 계속 왔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

선암사는 관음전이 주택공사에 의해 강제수용된 토지의 중간에 지리해 철거를 두고 주택공사측과 계속 마찰을 빚어왔고 3월 16일에도 해방사건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주공측에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촉구했다.

재불련 23일 임시총회

한국재가불자연합(상임공동대표 안동일)은 23일 오후 7시 서울 송천로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재가불자연합은 이날 총회에서 범종단적 재가운동단체로의 위상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이종구씨(전국방장관)와 박정희씨(관악뉴코아 대표) 등 2인을 공동대표로 추가 영입할 예정이다.

조계종 봉축책자 보급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불기 2541년 초파일 봉축책자 ‘우리들의 부처님’을 제작, 11일부로 보급했다.

봉축책자는 32쪽 분량의 칼라와보로 제작했으며, 초파일의 의미와 중생들에게 다가와 아픔을 어루만지는 부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 또 전법의 해를 맞아 자비의 탁발, 깨달음의 사회운동 등 새롭게 변모하는 불교의 모습을 집할 수 있도록 꾸렸다. 1부당 가격은 7백원이며, 2백부 단위로 포교원(02-720-7060~4)에 주문된다.

울산 한방병원 건립 추진

불교한방병원과 불교대학 교육관 건립을 위한 관세음보살 점안식이 14일 울산불교한방병원 건립당(주지 통하)에서 열렸다.

울 가을에 공사를 시작, 98년말에 완공되는 불교한방병원은 총 40여명이 소모되는 대작사. 지상 9층 지하 2층 규모의 이 병원에는 병실과 물리치료실외에 만발전(1만 관음전), 대발당, 요사채, 불교단체 사무실 등을 갖추게 된다.

東大 시간제학생 경쟁 치열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 '97학년도 제1학기 시간제등록 학생 선발결과 입학생 72명중 30~40대 직장인의 호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중순 시간제 학생 선발한 동국대에는 모두 4백70여명이 응시해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합격자 72명의 직업별, 연령별 분포는 취업자 69명, 주부 3명으로 30대가 41.7%, 40대 이상이 34.7%, 20대가 23.6%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원자의 98.6%가 졸업후 5년 이상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 내용·부세뇌도량, 이 가를 생정하게 가꿈시다 (SOD 청혈작용 때문에)
-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때문에)
-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화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때문에)
- ★ 장다려, 집중력, 공부머리가 강해 집니다. (조금의 차이도 1바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들립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중년층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료 효
과를 기록했다. (93.2.17 서울신문)

옥산가옥이 키워준 어머니
그러나
원마시 부주(11)에 전유은 편방을
다스리고자 기꺼워 있습니다.

玉山家 약국을 꼭꼭해서 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명당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777-0105 (우원판매)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잊어주어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국악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입세체제를 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리저리 찾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써 실제로 체험 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심으로 믿거나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전주사를 사용하여 조성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표면외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200여 사업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 체험 하였고 스님들이 전례함으로써,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 닿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스님들에게는 : 스님용책자와 신도용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스님용책자내용

1. 본회의 금강경 신탑다라니에서 계속적으로 광충된 신비스러운 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세와 길흉화복을 80%이상 적중시킬수 있는 기(氣)테스트 방법 수록.
2.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 소원이 성취되는 불탑다라니 사용방법과 상세한 처방전.
3.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 친족축복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4. 수저영가를 각각 불명을 지어 확실하게 천도시켜 주는 방법.
5. 불탑다라니로서 조상님의 산소를 후손이 받들어 명당자리로 만들어 주는 방법.
6. 이렇듯 영기의 불명짓는 방법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렇듯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를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을 명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살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불안정하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 성지관음회 (회장 혜진)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